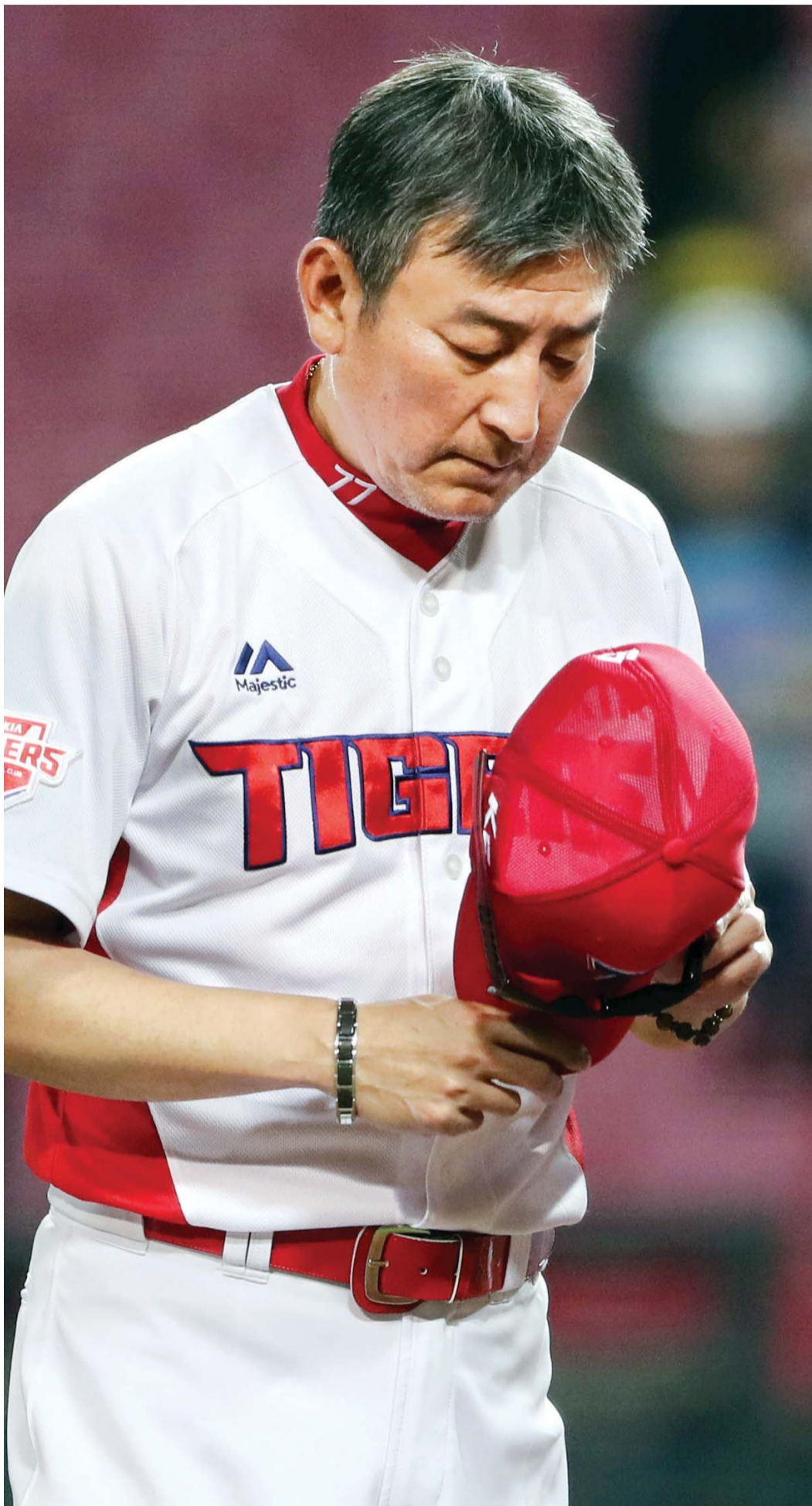


소통 부족·성적 부진... 우승감독의 씩씩한 퇴장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 전격 사퇴

지난해 '최고참' 임창용 방출 과정 구단 안팎 잡음
올 시즌 투·타 잇박자에 연패...우승 2년만에 꼴찌 추락
"성적 부진 책임" 사퇴... "좋은 추억만 안고 가겠다"

"좋은 추억만 안고 가겠다"는 말과 함께 '상남자' 김기태 감독이 KIA 타이거즈와 작별을 고했다. 갑작스러운 발표였다. 16일 KT 위즈와 경기가 열렸던 챔피언스필드의 오후는 어느 때와 다를 게 없었다. KIA 선수들은 전날 패배를 뒤로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전날 파울 플레이 타구를 잡기 위해 몸을 날리기도 했던 포수 한승택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몸을 날렸다.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안스럽기도 했다. 선수들의 이런 의지가 모여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웃었다. 이날 5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하게 된 황대인은 "정말 이기고 싶다. 오늘 뭐라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임시 주장' 역할을 맡은 안치홍도 "잘하고 싶다.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 많고 있다"며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은 것 같다. 그 부분에서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상적인 감독의 언론 인터뷰 시간이 30여 분 지연됐다. 뒤늦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감독은 "라 인업이 궁금하실 것인데 오늘 유민상이 지명타자로 들어간다"며 어색한 미소를 지은 뒤 "감독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한 김 감독은 "좋은 추억만 생각하겠다"며 "제가 할 줄 아는 게 야구밖에 없고, 야구밖에 모르고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KIA를 사랑해준 팬들과 여러 선수, 프런트 관계자들 너무 감사했다.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들이 있지만 좋은 추억만 간직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2017년 V11을 이룬 뒤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김 감독은 2년 뒤에는 아쉬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보이며, 마지막을 이야기했다. 선수들도 뒤늦게 언론을 통해 전격 사퇴 발표 소식을 접했다.

김 감독은 '임시 주장' 안치홍과의 면담을 통해 선수단에 메시지를 전달했고, 선수들은 자체 미팅을 가진 뒤 16일 경기를 준비했다. '우승 감독'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김 감독이지만 그 여운은 길게 가지 못했다. '우승 멤버' 그대로 2017시즌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 감독은 힘겨운 5강 싸움 끝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최고참' 임창용과 매끄럽지 못했던 작별 과정 등 구단 내부의 소통 부족도 김 감독에게는 큰 짐이 됐다. '명예 회복'을 외치며 시작한 2019시즌에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겹쳤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 트리오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김 감독은 신예들을 중용하며 분위기 반전의 키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객관적 전력 차와 투·타의 잇박자 속에 패배가 계속됐다. 지난 4월 21일 두산전 2-9패와 함께 처음 10위를 경험했던 KIA는 지난 12일 SK에 3-4로 스윙을 당하면서 다시 10위로 추락했다. 김 감독은 14일부터 안방에서 진행된 9위 KT와 경기에서도 연패하면서 결국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행님 리더십'으로 11번째 우승을 지휘하며 타이거즈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김 감독은 아쉬운 눈물과 함께 씩씩하게 그라운드에서 퇴장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승격 향해 전력질주

FA컵 16강전 수원에 0-3 패... 20일 K리그2 서울과 일전

FA컵 향해를 끝낸 광주FC가 '승격'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속력을 낸다. 광주는 지난 1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 2019 KEB 하나은행 FA컵 16강 원정 경기에서 0-3으로 졌다. 올 시즌 처음 기록된 광주의 패배다. 정규리그 11라운드까지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광주는 앞선 FA컵 두 경기 승리까지 13경기에서 패배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광주는 '강적' 수원의 총공세에 막히며 시즌 14번째 경기에서 첫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가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한 반면, 수원은 베테랑 염기훈, 데안, 홍철, 사리치 등 주축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FA 우승컵을 향한 욕심을 드러냈다. 쟁쟁한 선수들을 상대로 광주의 고군분투가 이어

졌지만 염기훈의 발이 수원 승리의 시작점이 됐다. 팽팽한 0-0의 승부가 전개되던 전반 40분, 광주 두현석이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 두 명을 따돌리며 골대까지 전진했다. 그리고 두현석이 중앙에서 뛰어 들어오던 임민혁을 향해 패스했지만 아쉽게 공은 발을 비켜났다. 이어 흘러나온 공을 잡은 여봉훈의 슈팅까지 이뤄졌지만 수비수에 맞으면서 공격 기회가 수원에게 넘어갔다. 기회를 잡은 수원이 빠르게 광주 진영으로 침투했다. 중앙에서 염기훈이 페널티박스 왼쪽에 있던 한의권에게 패스를 찢러줬다. 한의권은 곧바로 반대쪽에 있던 신세계를 향해 크로스를 띄웠다. 이어 신세계의 오른쪽 슈팅이 광주의 골대 오른쪽 상단을 뚫으면서 '0'의 균형이 깨졌다.

후반 시작 3분 만에 다시 광주의 골망이 출렁거렸다. 전반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사리치가 왼발 슈팅으로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다. 후반 40분에는 한 차례 골대를 때리며 명을 찼던 한의권이 광주 수비수 김태운과 골키퍼 김태곤의 방어막을 뚫고 수원의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이후 추가골 없이 경기가 종료되면서 광주는 0-3 패로 FA컵 우승 도전을 멈추게 됐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 대신 기회를 잡은 선수들은 수원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박진섭 감독은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승격'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구상할 수 있었다. 또 시즌 첫 패배의 순간을 맞았지만 광주의 정규리그 '무패행진'은 진행 중이다. 광주는 지난 12일 진행된 2위 부산아이파크와의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펠리페의 페널티킥으로 극적인 무승부를 이루며 1위를 지켰다. FA컵 패배의 아쉬움을 털고 '승격'에 올인하게 된 광주는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름다운 질주 '마침표'

'빙속 여제' 이상화 은퇴 기자회견
"무릎 수술...최고일 때 떠나고 싶다"



'빙속 여제' 이상화(30)가 선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상화는 16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상화는 "평창동계올림픽 후 선수 생활을 이어 가려 했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몸 상태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팬들이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줄 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은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3월 말에 은퇴식을 잡았다가 취소했다. 막상 은퇴식을 하려니가 (선수 생활이 끝나는 실감이) 온몸에 와달더라. 너무 아쉽고 미련이 남았다. '조금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재활 운동을 했다. 그러나 예전 몸 상태가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위치에서 마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상화는 세계 최고의 여자 단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그는 휘경여중 재학 시절 태극마크를 처음으로 단 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500m 금메달,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500m 금메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500m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특히 2013년에 세운 36초36의 여자 500m 세계 신기록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이상화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소치 올림픽 때를 꼽았다. 그는 "스피드스케이팅계에선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는 그다음 올림픽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다는 징크스가 있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난 이겨냈다. 올림픽 2연패를 했다는 것과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이상화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상화는 "저 선수도 하는데 왜 난 못하지"라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했다. 이런 생각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로 "김민선(의정부시청)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는 어리지만, 정신력이 강한 선수다. 내 어렸을 때 모습과 비슷하다. 평창올림픽 때 같은 방을 썼는데 오히려 내게 떨지 말라고 잘 하라고 하더라. 좋은 신체 조건도 갖고 있다. 김민선이 빙상 최강자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권순우, 광주오픈챌린저 단식 8강 안착 권순우(147위·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광주오픈 챌린저대회 단식 본선 3회전에서 스키타 유아치(187위·일본)의 볼을 받아내고 있다. 세트 스코어 2-1로 8강에 진출했다. <대한테니스 협회 제공>